

포커스-e제품

# 150년 만에 돌아온 아날로그 감성의 디카 'PEN'

올림푸스한국(주) 신개념 하이브리드 카메라 발표  
기자간담회 개최

●●● 취재 | 박지연 기자 |

아날로그 필름카메라의 전설 '올림푸스 PEN'이 50년 만에 첨단 디지털카메라로 부활했다.

올림푸스한국(대표 · 방일석 [www.olympus.co.kr](http://www.olympus.co.kr))은 지난 6월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마이크로 포서드 시스템을 적용한 '펜(PEN)'이라는 새 브랜드의 카메라 'E-P1'을 공개했다.

PEN은 지난 1959년 10월 출시된 이래 전 세계적으로 총 1700만대가 판매되며 인기를 누렸던 올림푸스의 전설적인 하프프레임 카메라의 이름을 따온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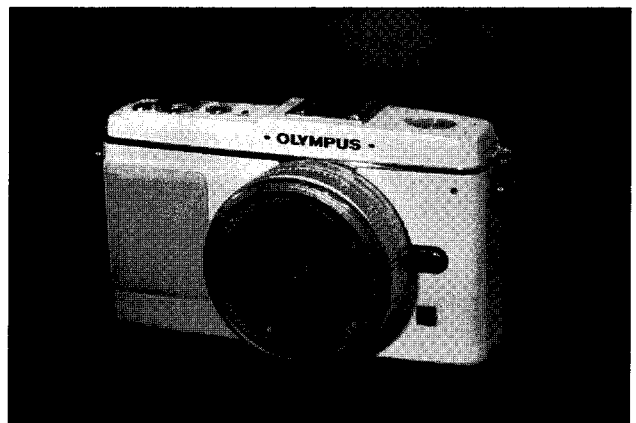
새로운 포켓 카메라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이날 행사장은 그 어떤 자리보다 많은 취재진들로 북적거렸다. 더욱이 그 동안 신제품 발표회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방일석 대표도 참석, 인사말과 함께 직접 프리젠테이션까지 진행하며 이번 제품에 거는 기대를 한껏 드러냈다.

방일석 대표는 "신제품이 오리지널의 매력을 발전시킨 트렌디한 디자인과 더불어 작은 크기와 편리성 면에서 오리지널 PEN처럼 혁신적이기 때문에 신규 브랜드명을 동일한 PEN으로 붙이게 됐다"고 설명하고 "PEN 브랜드 런칭을 통해 기존의 DSLR과 콤팩트로 구분되던 카메라 시장에 새로운 개념의 제품군을 창출함으로써 카메라 신시장을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올림푸스의 SLR상품기획 총괄책임자겸 마이크로 포서드 총괄책임자인 스키타 유키히코씨는 "2007년 올림푸스 조사에 따르면 2009년 디지털 카메라 총출하수는 1억 1,897만 1천대 시장이 예측되는 가운데 콤팩트 시장의 20%가 DSLR 잠재시장으로 파악됐다"며 "기존 DSLR의 고화질의 장점과

콤팩트 디카의 간편성·휴대성 등의 장점을 결합시켜 탄생한 마이크로 포서드 시스템만의 강력한 성능과 감각적 디자인을 갖춘 신제품 펜으로 카메라의 새 카테고리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PEN E-P1'은 HD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신개념의 렌즈교환식 카메라로, 포서드 규격 DSLR 카메라의 대형 이미지 센서를 장착하고도 그 두께는 기존 카메라의 1/2 수준인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밖에도 1230만 화소 4/3인치 고속 라이브 MOS 이미지 센서 장착 ▲ 새롭게 개발된 영상 처리엔진 트루픽V 탑재 ▲ 4EV손 떨림 보정기 바디 내장 ▲ 초당 3장의 고속연사와 HD 동영상 촬영 기능 ▲ 손쉽게 창의적인 촬영을 가능케 해주는 '아트필터' 기능 등을 갖추



▶올림푸스의 첫 번째 마이크로 포서드 카메라 PEN은 지난 1959년 10월 출시된 이래 전 세계 큰 인기를 모았던 올림푸스의 전설적인 하프프레임 카메라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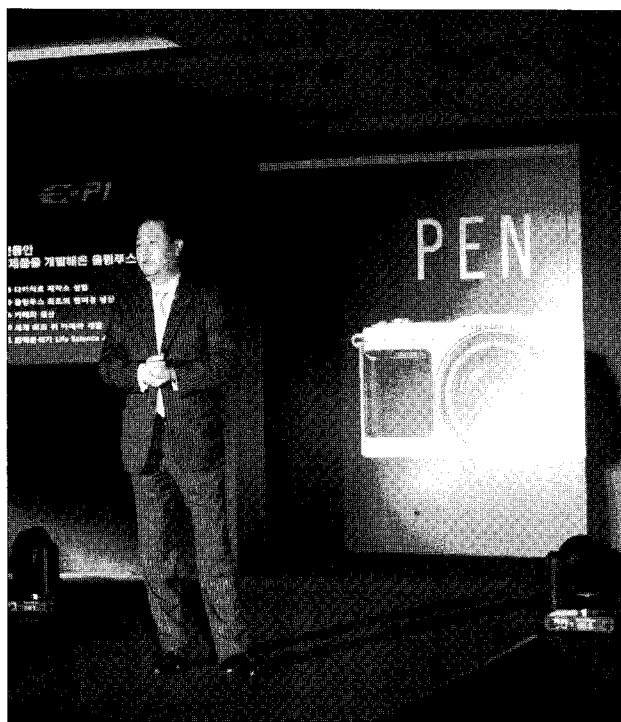
고 부피는 세계 최소형 DSLR 카메라 대비 58%까지 줄인 제품이다.

단순히 사이즈만 작아진 것이 아니라 아날로그 시대, 필름 카메라의 분위기가 곳곳에서 발견되는 무광택 금속 재질의 독특한 스타일을 구현했다는 점도 이 제품의 특징 중 하나다. 또한 기존의 올림푸스 카메라에 적용됐던 아트필터 기능을 동영상에도 적용할 수 있어 사용자의 개인 취향을 살린 창의적인 동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것도 강점이다. 동영상 촬영 시 오디오 부분은 전 세계 보이스레코더 판매 1위인 올림푸스의 명성에 걸맞게 스테레오 녹음이 가능해 마치 CD를 재생시킨 듯한 품질을 제공한다.

회사는 PEN 카메라 출시와 함께 두 가지 마이크로 포서드 방식의 교환식 렌즈, M.ZUIKO DIGITAL 17mm f2.8 광각 팬케이크 렌즈, M.ZUIKO DIGITAL ED 14-42mm f3.5-5.6 표준 줌 렌즈를 각각 출시할 예정이다. 이 두 렌즈는 뛰어난 촬영성과 휴대성은 물론, 카메라 본체를 보완하는 초박형의 고풍스러운 외장 디자인을 가진 것이 특징이다.

올림푸스한국은 이번 PEN 브랜드 런칭으로 기존의 DSLR과 콤팩트로 구분되던 카메라 시장에 새로운 개념의 제품군을 창출하면서 시장 재편을 위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과감하게 기업명과 브랜드명을 분리해 PEN을 단순한 올림푸스의 신제품 개념이 아닌 카메라 시장 전체에서 DSLR과 콤팩트 사이의 독자적인 카테고리로서 자리매김시킨다는 전략이다.

올림푸스 한국의 권명석 영상사업본부장은 “올림푸스의 첫 번째 마이크로 포서드 카메라인 PEN은 올림푸스 광학 90년의 기술이 집약된 최고의 카메라이며 지금까지의 카메라와 선을 긋는 기념비적인 제품”이라며, “PEN 브랜드를 통해 기존 DSLR 카메라 사용자층은 물론 모든 종류의 카메라 교체 수요를 공격적으로 공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방일석 대표가 직접 프리젠테이션까지 진행하며 신제품에 거는 기대를 한껏 드러냈다.



▶올림푸스의 첫 번째 마이크로 포서드 카메라 PEN을 모델들이 다양한 컨셉으로 선보이고 있다.

